

# 기업 어려움 대변하는 보도에 충실



지난 9월 4일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동아미디그룹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광고주협회 이정치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사 임직원 80여 명과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동아일보의 편집방향'에 대해 최영훈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채널A 편성방향'에 대해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이 각각 매체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는 회원설문을 통해 접수한 내용을 정리해 동아일보 측에 전달했다.

**사무국** | 동아일보는 정론지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어느 매체보다 애정이 가는 신문이다. 평소 사설이나 경제관련 뉴스를 매일 보는데, 최근 현대차 노조와 관련된 사설이나 상법개정안 보도만 봐도 역시 동아일보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팩트에 입각해 정확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최근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하면서 반면에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에 대한 욕구도 높다. 지난 5월 '한국기업에 다시 날개를'이라는 연재를 했는데, 기업 입장과 의견을 보다 많이 지면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란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정부는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전제로 한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최영훈 편집국장** | 동아일보가 선제적 문제 제기로 상법개정(안) 문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여전히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 보도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문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서 잘못된 법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대차 파업문제도, 여러 가지로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노조의 불합리한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적기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서 경제살리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보도를 충실히 해 나아가겠다. 